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헌장

서문

오늘날 정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종종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세계적 문제들로 야기된 엄청난 긴장을 겪고 있다. 동시에 세계는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개개인과 민족들의 존엄성과 권리들을 새롭게 자각하고 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바로 이런 복합적인 세계 정세 속에 당면한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도, 새로운 이념들과 새로운 비전vision들, 새로운 전망들이 어디에서나 무르익곤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피어난, 그 첫 번째 이념들 또한,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생겨나는데, 그 무렵 끼아라 루빅(Chiara Lubich)은 민족들 사이에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시작함으로써, 1900년대의 비극적인 어둠에 빛을 밝혀 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치의 이상理想은 정치 행위를 "사랑 중의 사랑"ⁱⁱⁱ으로 바라본다. 일치의 이상은 개인과 사회가 지녀왔던 꿈들을 수년간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로 모아왔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 헌신하도록 독려해왔다. 이 같은 이상理想으로부터 정치 혁신의 국제적 실험장인,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Movimento politico per l'unità: 이탈리아어 약자 Mppu)』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래가 불평등하거나 획일적인 세계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그룹들,

도시들, 국가들, 민족들 간의 존중과 상호적 사랑을 표현하는 정치외교 관계에 의해 일치를 이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일치를 이룬 세계에서는 공동의 분야들에 대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권한을 갖는 하나의 정부 당국이 번갈아 가며 들어서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들과 각 민족이 지닌 근본적인 가치들을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정치적으로 불편적 형제애를 실천한다. 또한 사회 공공을 위한 재화의 사용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나눔, 환경에 대한 존중, 정의와 자유의 노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지지한다.

다양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들 간의 '일치와 상호 구별'이라는 역동성에 부응하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원적인 의사 결정 모델들을 지지한다. 이는 생생한 사회적, 제도적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참여의 절차를 모두 토대로 하여, 각 민족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실체를 지닐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16년 6월 23일과 24일에 이탈리아 카스텔간돌포에 모인,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Movement promoting politics and policy for unity)』 본부들은 전 세계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현現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고자 한다.

제1부

실천, 사상, 양성, 협력, 전파

제1조 - 정치 행위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 기관이나 정당에서 직책을 맡은 이, 각급 공무원, 사회 연구가 및 정치 연구가, 실천에 나서는 능동적인 시민 등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 은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보편적인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참여자 자신들 서로 간에 맺어 나가고, 이를 자신의 정당 내부에서나 서로 다른 정당 간에, 기관 내부에서나 모든 공공 분야에, 국가 간 관계 등에 확장해 가고자 한다.

자신의 정치 프로젝트나 다른 이의 정치 프로젝트가 지닌 역사와 역할,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나 다른 기관들, 자신의 도시나 다른 도시들, 자기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그 역사와 역할,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행동 방식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행하고자 한다.^{iv}

자신의 도시, 자신의 지방이나 자신의 나라에 대한 참된 정치적 사랑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되, 세계적인 정치의 지평 안에서, 또 세계적인 정치의 지평을 위해 행동한다는 자각 하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

사람들과 민족들의 여전히 깊은 상처와 실제적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화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려는 활동들에 참여하고자 한다.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시민들과 민족들이 정치 일정에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공정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주는 문화 the culture of giving>를 증진하고자 한다. <주는 문화>는 예기치 않았던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들, 예상치보다 백 배에 이르는 결실들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정치적인 실천이 사회 공동체 전체의 정치적 역할의 배경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현실들 간의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모두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게 하고자 한다.

투표일 이후에도 **당선자와 유권자들을 이어주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새롭게 돌아보면서, 당선자의 직책이 지닌 윤리적, 참여적 측면과 기본 계획에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각자는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애착도 끊고** 자신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정치적, 기술적, 외교적 활동 면에서, 혹은 연구 활동 면에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키우며, 정치 스타일과 개별 정책, 국제관계와 법률을 쇄신하고, 각 지역 기구 및 국제 기구의 구조를 쇄신하는 데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치적 역할이나 기술적 역할이 선익善益에 도움이 되고,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며, 모든 특정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활동과 자금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제2조 - 새로운 정치 문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이 전하는 **정치 문화**, 또 확산하고자 하는 정치 문화는, 역사와 동시대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정치 사상이 일치의 이상理想과 그 좋은 실천 사례들을 만나, 서로 대화함으로써 발전하게 된다.

이런 **연구와 학문적 노력**은 주로 압바학교(Scuola Abbà)^v와 소피아 대학원대학

(Istituto Universitario Sophia)^{vi}과의 협력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이 두 기관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처럼 포콜라레운동의 정신을 표현하며, 석박사 과정이 개설돼 있고, 일치의 이상理想의 빛으로 여러 학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그룹들과 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학문 간, 여러 문화 간의 협업**을 선호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자리하고 있다. 곧, 상호간에 상대를 풍요롭게 해 줌으로써, 각 민족이 지닌 귀중한 문화 유산과 가치관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vii}, 이를 통해 세계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며, 이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 **일치의 문화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인도주의(humanism)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다.

제3조 - 양성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이 운동이 전해주는 **문화와 증거에 바탕을 둔 정치적 양성**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 속에 태어난 경험들과 이념들을 존중하고, 이 같은 배경들 속에 정치적으로 건설적인 일을 실현해 나가는 데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모임들을 조직한다.

정치인, 외교관, 공무원, 연구자, 능동적인 시민 등이 a) 일치의 이상理想과 b) 이 이상理想이 정치적 삶과 정치 활동에 주게 되는 영향 c) 좋은 실천 사례 등을 견주어 보면서, 경험과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조직한다.

특정한 정치적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상호 경청과 협력의 분위기 속에

토론을 벌여 나가는 **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혹은 포럼**을 조직한다. 이 같은 모임은 참가자의 비전과 소속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생각과 해결책이 무르익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정치와 정책들을 연구하고 혁신하는 데 관심을 지닌 **젊은이들**을 위한 양성 과정 및 토론회 모임을 조직한다. 이는 **공동체적인 양성의 장場**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들과 상이相異한 분야의 학문들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여러 아이디어의 실험장이자, 능동적인 시민 의식에서 나온 구체적인 활동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참여나 국가 기관 및 국제 기관에서의 정치적인 참여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제4조 - 협력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여러 사회 분야와 학문 분야에서, **문화와의 대화**에 주력하는 포콜라레운동의 유사한 실제 활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포콜라레운동의 고유 목적들^{viii} 중에 한 목적을 표현한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같은 일치의 이상理想으로부터 힘과 영감을 받는 『새인류운동 New Humanity Movement』^{ix} 및 『일치된 세계를 향한 젊은이 운동 Youth for a **United World**』^x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능동적인 시민 참여 프로젝트**나 홍보 프로젝트, 또는 개별적인 인간 행위와 사회 구조를 쇠신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이런 활동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국제 본부는 NGO(비정부 기구)인 『**New**

Humanity』^{xi}가 여러 국제 기관들에서 하는 활동들에 협력한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이 운동이 추구하는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단체나 법인, 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동의 활동, 또는 이들에 의해 추진되는 공동의 활동에도 동참한다.

제5조 – 전파傳播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이 운동 자신의 이념과 경험을 제공하고 전파하기 위해, 공공 부문 사업과 연구 활동, 출판물 등을 활용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들과 기타 모든 적합한 활동도 활용한다.

제2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본부들의 네트워크 및
포콜라레운동과의 관계 (내부 조직 및 회장직, 자산 관련)**

제6조 – 국제 본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의 활동들은, 이 운동의 '국제 본부'라는, **봉사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에 의해 조율되며, 이 '국제 본부'는 3명 내지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국제 본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본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협력하고 정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적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 구성원들은 아래에 나오는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의 선출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제7조 - 회장, 공동회장, 사무총장

회장(남녀 모두 가능)은 세계 각지의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의 전체 네트워크의 업무를 지원하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또한 이 헌장에 기록된 목적들이 언제나 모든 단계에서 추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회장은 세계 각지의 Mppu 본부들 사이의 관계, Mppu와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및 그 갈래들과의 관계를 돌본다. 회장은 공식적으로 국제 Mppu를 대표한다.

회장은 국제 본부 소재지에서 반드시 상근常勤할 수 있어야 한다. 회장은 기관이나 정당에서 맡은 직책을 Mppu 회장 임기 동안에는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회장은 공동 회장(남녀 모두 가능),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 역할을 맡은 사무총장(남녀 모두 가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 회장과 공동 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은 **대내외적 관계와 모든 활동에 Mppu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확실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 - (의견 수렴의) 참여 과정 및 심의 과정

임기 만료 6개월 전, 한 달 동안 (제13조 참조) 국제 본부는 자신의 임기 동안의 모든 활동을 결산하는 문서를 준비해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의) 각국 본부들과 포콜라레운동의 회장에게 보낸다.

같은 달(국제 본부의 임기 만료 6개월 전 한 달) 내로, 각국 본부 - **이미 구성된 상태이거나 구성 중인 각국 본부** (제12조 참조) - 는 새로운 국제 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5인 이하의 후보자 명단을, 사진과 짧은 이력서, 사전 동의하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다른 소개 자료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해서 국제 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보낸다.

국제 본부의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들이 제6조, 7조에 표현된 필수적인 주요 기준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각국 본부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들로 된 이력서가 정확히 번역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사무총장은 (국제 본부의) 임기 만료 5개월 전 한 달 내로 이와 같은 명단을 각국 본부 - 이미 구성된 상태이거나 구성 중인 각국 본부 - 에 보내며, 포콜라레운동의 회장에게도 참조를 위해 보낸다.

각국 본부는 (새로운 국제 본부를 구성할 후보자들을 각국 본부 차원에서 추천해서, 그 후보군 명단을 국제 본부에 보내기 위한 의견 수렴의) **참여 과정 및 심의 과정**을 조직, 감독하며 그 결과를 수집하되, 이 과정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a) 각국 본부 및 모든 해당 지역 본부 내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대화
- b) 다양한 분야에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에 호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문호 개방과 참여 유도 (제1조 참조)
- c) 국제적인 기본 방침들과 3인의 후보자 규정에 따라 미리 적합하게 준비된

심의 단계. (3인의 후보자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항을 참조)

적어도 국제 본부의 임기가 만료되기 50일 전에, 각국 본부 - 이미 구성된 상태이거나 구성 중인 각국 본부 - 는 **해당 국가 본부의 기본 방침들과 (새로운 국제 본부를 구성할) 3인의 후보자(남녀 모두 가능) 명단**을 국제 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보낸다. 3인의 후보자들 중에 적어도 1명은 (남녀 모두 가능) 각국 본부를 구성하는 멤버들과는 다른 국적이어야 하고,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이미 작성해서 국제 본부에 보낸 명단 외에, 추가로 후보자를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만 더 (남녀 모두 가능) 제안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각국 본부는 명단 외에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는 이유와 모든 관련 정보들을 함께 준비해서 보내야 한다.

제9조 - 본부 구성원들의 임명

국제 본부는 적어도 자신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이전 조항에 명시된 (새로운 국제 본부를 구성할 후보자들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참여 과정 및 심의 과정의 결과들을 **포콜라레운동의 회장**에게 보낸다. 회장은 이 같은 결과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1명의 후보자(남녀 모두 가능)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국제 본부의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제6조 참조)

제10조 - 첫 소집과 회장 선출

이와 같이 구성된 국제 본부는 적어도 3일 이상, 기본 계획 관련 작업 회의를 하기 위해 소집되며, 회의 소집은 고참 회원(남녀 모두 가능)이 맡는다. 이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장(남녀 모두 가능) 및 공동 회장(남녀 모두 가능)을 차례로 선출하는 것으로**, 당선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신임 회장 및 신임 공동 회장은 새로운 국제 본부의 나머지 구성원들 중에 **사무총장(남녀 모두 가능)**을 정한다.

이 회의 말미에는 각국 본부 - 이미 구성된 상태이거나 구성 중인 각국 본부 - 에 모두 다음의 문서들을 보낸다.

- a) 국제 본부의 조직 구성 현황
- b) 임기 내 활동 기본 계획서 (향후 3년간의 예산 계획서 첨부)
- c) 임기 첫 해의 어젠다(agenda, 의제)

포콜라레운동의 회장에게도 같은 문서들을 전달한다.

제11조 - 각국 본부와 지역 본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의 **각국 본부 및 해당 지역 본부**는 정치 지리학 적 상황에 맞게, 또 국제 본부와 조정하에 구성된다. 각국 본부 및 해당 지역 본부의 구성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Mppu 발전 수준에 맞도록 하며, 이 헌장 제 8조, 9조, 10조 및 13조에 의거해서 국제 본부의 구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제9조에 명시돼 있듯이, 각국 본부 및 해당 지역 본부의 구성원 임명은 (해당 국가나 지방, 도시 등) 각급 지역에서 포콜라레운동을 대표하는 사람과 국제 본

부 간의 협의하에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지방 본부나 도시 본부의 구성원 임명의 경우, 각국 본부와 협의)

이와 같은 본부들이 아직 구성되지 못한 곳에서는, 각급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Mppu 국제 본부 또는 각국 본부가 해당 지역 포콜라레운동의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에, **Mppu 활동을 1인에게 맡겨 이러한 본부 구성 단계에서 Mppu의 업무와 활동을 임시로 맡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본부들과 각국 본부들, 그리고 국제 본부는 각각의 자율성과 서로 다른 과제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은 상호적 관계들을 키워 나간다. 또한 Mppu의 어젠다(agenda, 의제)에 기여하고, 세계 각지에서 Mppu의 발전에 관련된 보다 중요한 선택들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 자격을 갖춘 과반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제6조와 제11조에 언급된 각 공동 운영 기구(각 본부)는 각각의 실제 구성원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향방을 정한다. 제8조에 언급된 (의견 수렴의) 참여 과정 및 심의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투표에서는, 참석자 인원의 **2/3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제13조 – 임기 만료와 구성원들의 교체

국제 본부와 각국 본부, 그리고 해당 지역 본부의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連任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사임의 경우나 직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 포콜라레운동의 회장은 (또는 각국 본부나 해당 지역 본부에 대해 포콜라레운동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국제 본부와 협의하에 (또는 지방 본부나 도시 본부의 새로운 구성원의 임명일 경우, 각국 본부와 협의하에) 새로운 구성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임이나 직무 수행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 Mppu 본부들의 회장(남녀 모두 가능)이나 공동 회장(남녀 모두 가능), 또는 사무총장(남녀 모두 가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제시된 대로 이어서 진행된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 또는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 프로젝트 및 자산

국제 본부는 『New Humanity』, 또는 다른 NGO(비정부 기구)들 중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단체 등 법인의 협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적정適正한 기금 지원 계획 공고公告가 있을 때, 이들 법인을 통해 기금 지원을 신청하고 경합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각국 본부와 해당 지역 본부는,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전국 단위 및 지방 단위의 법인과 협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검소함, 투명성, 공개성公開性**의 원칙을 지키며 이 운동 자체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Mppu의 목적 및(또는) 프로젝트

들에 공감하는 모든 이의 자유로운 기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재정 지원은 이루어진다.

결산서를 포함해 Mppu에서 전개한 활동들에 관한 보고서는 각 본부가 맡아서 작성하며, 각 본부의 웹사이트나 관련 웹사이트에 공시公示된다.

Mppu 각 본부의 구성원들은 각종 Mppu 모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각 본부는 자원봉사나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활동 등 각종 협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NGO나 다른 조직체들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같은 협력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5조 - 승인 및 수정

현現 헌장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내에서 세계적인 (의견 수렴의) **참여 과정**을 거친 후에 작성되었고,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평의회에 2016년 5월 3일 제출되어, 인준을 받았다. 현 헌장은 2016년 6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카스텔간돌포에 모인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전 세계) 각 본부 대표자들의 서명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헌장에 대해 Mppu나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평의회에서 제안하는 모든 수정안은 동일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미주 설명

i 끼아라 루빅(1920-2008), 1943년 포콜라레운동을 창설한 여성으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성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교회 내의 나눔과 친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교회일치운동, 종교 간 대화 및 비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의 대화 면에서 선두에서 솔선수범했고, 민족들 사이에 일치의 문화, 형제애의 문화를 증진하는 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관련 웹사이트: 끼아라 루빅 센터 www.centrochiaralubich.org)

ii “(...) 저 자신과 제가 대표하는 포콜라레운동에 영혼을 불어넣어준 ‘일치의 이상理想’은,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의 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모두에게 무상無償으로 주어져, 등록이나 소속을 요구하지 않으며, 문화와 종교, 소속 정당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른 이들과 일치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밝혀주고, 서로의 차이를 합당하게 구분하여 인류 공동의 계획에 우리 각자가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21 참조)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끼아라 루빅, 『일치된 세계를 위한 일치된 유럽』, 유럽 운동 대회, 마드리드, 2002년 12월 3일)

iii “사실 정치인이 지녀야 되는 사랑의 임무는, 다른 모든 사랑들이 피어나도록 해주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집과 일자리가 필요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학교

와 책이 필요하며, 자신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규칙 등이 필요한데, 이 각 사람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지속되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각자에게 자신의 소명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하나의 공동 계획의 일치 안에서 사람들과 그룹들이 지닌 풍요로움을 모아들이는,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사람들과 그룹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책을 마련해 주고, 질문들에는 답을 주며, 모든 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치는 꽃의 줄기에 비유할 수 있으니, 공동체라는 꽃잎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지탱해 주고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끼아라 루빅, 인스부룩, 2001년 11월 9일, 『유럽을 위한 1,000개의 도시』 유럽 모임에서)

iv “남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도 남에게 해 주고, 남이 우리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도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하는데, <황금률>이라고 불릴 만큼 소중한 이 규범은 주요 종교의 경전과 여러 문화의 지혜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v 1991년부터 연구 활동을 해온 포콜라레운동 학술연구센터

vi 소피아 대학원대학(IUS - Istituto Universitario Sophia)은 양성 및 학술연구 센터로서,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이곳에서는 실존과 사상의 만남, 서로 다른 문화들과 상이相異한 분야의 학문들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소피아 대학원대학의 본부는 (행정구역상 이탈리아) 피렌체Firenze 인근 인치사 인 발다르

노(Incisa in Val d'Arno)에 위치한 소도시 로피아노Loppiano에 있다. 향후 다른 국가
들에도 특정 연구 목적을 지닌 소피아 대학원대학 분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http://www.iu-sophia.org>

vii “저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며 상호 풍요로워지게 될 날
을 꿈꿉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품는 하나의 문화가 태어나게 되고, 이 문화는 언
제나 각 민족의 참된 부유富裕함이었던 가치관들을 우선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그 가치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혜라고 호평을 받을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 저는 (세계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정부 당국이 번갈아 가며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두 공감하는 민족들이 서로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룬
세계가 실현될 날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 하늘 새 땅이 이미 앞당겨질 날
을 꿈꿉니다. 그것이 여기 땅 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꿈
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한 또 다른 천년기, 제3천년
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끼아라 루빅, 치타누오바Città nuova지誌, 2000년도 제1호)

viii 포콜라레운동의 회칙, 고유 목적, 제6조, e)항 참조

ix 『새인류운동 New Humanity Movement』은 포콜라레운동의 사회적 차원의 표현으
로서, 전문가 활동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활동을 통해 사회 관계 및 조직
구조, 도시의 삶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이들과 더불어 용기
있게, 인류의 커다란 고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하고자 한다.
www.umanitanuova.org

x 전 세계 180개국에서 활동 중인 『일치된 세계를 향한 젊은이 운동 Youth for a

United World (Y4UW)』에 속한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형제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상호 일치되어 있는 젊은이들이다. 또한 이들은 보편적인 형제애가 정치, 경제, 노동, 환경 보호,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과학 및 예술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 공부를 통해, 또 시민으로서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 - 이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www.y4uw.org

www.unitedworldproject.org

^{xi} 『New Humanity』는 10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국제 NGO(비정부 기구)로서 198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고, 2005년부터는 포괄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도 획득했다. 2008년부터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의 NGO 공식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New Humanity』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 연합[EU]의 집행위원회)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